

공간, 시간, 사회/자연의 상호관계성에 의한 지역이해*

박규택** · 이상률***

본 연구는 역동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공간, 시간, 사회/자연의 상호관계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지역은 자연적 혹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에 기반을 둔 사회적 인식과 실천에 의해 (재)생산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동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공간, 시간, 사회/자연의 상호관계성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공간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수립하려는 다양한 사회이론은 역사, 사회적 관점에서 공간과 시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공간, 시간, 사회/자연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공간과 시간의 규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지역, 사회이론, 공간, 시간, 공간과 시간규모

1. 서론

지리학은 지구공간에서 실현되는 자연현상과 인문·사회현상을 종합적이고 역동적으로 해석·설명하고 예측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를 지역 공간규모의 관점에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지역연구이다. 그러나 지역연구가 지리학에서 중심적 위치를 점유해 왔고, 미래에도 중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표면의 다양한 현상을 수집하여 분류·명명하거나 단순하게 현상들을 종합하려는 지역연구와 물리학, 기하학, 논리학 등에서 발전된 공간이론에 바탕을 둔 지역연구는 지역공간과 사회·자연현상의 상호관계성을 역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는 한계점을 보였다.

1970년대 이후 서구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이성, 합리성, 객관성이란 비공간적·역사적인 추상적이고 일반적 개념에 기초한 전통적 사회이론을 강

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철학과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Foucault, 1980; Giddens, 1984; Harvey, 1990; Lefebvre, 1991). 이러한 시대흐름에 강한 영향을 받은 인문지리학이 새로운 사회이론과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지역연구의 방향도 변화되었다. 새로운 지역연구의 방향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회이론은 공간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관한 것으로, 공간은 사회적 힘(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된 사회공간은 내적 갈등 혹은 분리된 사회공간간의 경쟁, 혹은 마찰에 의해서 사회변화에 적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그리고 지역연구는 신지역지리(new regional geography)라는 이름하에서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본의 연속적 투자와 사회 공간의 생산과 재구조화에 초점을 둔 정치경제학적 접근, 구조와 행위주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

* 본 논문은 1999년도 한국지리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시간강사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전임강사

현상과 심층구조의 관계를 연결시키려는 실재론(realism)적 관점에서 지역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신지역지리는 지방연구(locality studies)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논의가 진행되었다(이회연·최재현, 1998; Chouinard, 1997; Jonas, 1988; Massey, 1984; Pratt, 1995; Sayer, 1992; Thrift, 1983; Yeung, 1997). 사회공간이론과 신지역지리는 지역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1) 지역, 시간, 사회의 상호관계성, 2) 지역 사회와 자연환경의 관계성, 3) 상이한 공간규모와 시간규모(time scale)의 작용성에 대한 논의를 깊이 있게 진행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연구의 새로운 방향모색의 현실적 필요성은 세계화의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이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자연환경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모색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포괄적인 문헌연구에 있지 않고, 지역을 종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2. 지역의 개념화

지역이란 용어는 지리학을 포함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역동적인 관점에서 개념을 정의한 경우는 드물다. 이것은 지역의 개념이 복잡하고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사회, 자연현상을 포함시켜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개념화 작업을 회피하는 경우와 지역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묵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와 관계가 있다. 지리학에서 지역연구는 긴 전통을 지니고 있지만, 지역개념에 대한 폭넓고 비평적인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았다.¹⁾ 공간, 시간, 사회·자연현상의 관계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은 한정된 물리적 공간에 기초한 다양한 사회·자연적 현상들이 상호 작용하여 형성, 지속/갈등, 변화되는 유기체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개념은 인식론적 관점, 물리적 공간의 관점 그리고

사회적 관점으로 세분화시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지역개념은 개별 혹은 집단적 인간의 주관, 상상, 이상, 이념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물리적 공간과 사회·자연현상에 기반을 두는 경우와 허구, 상상, 이상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지역이 사회, 자연현상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지역과 이념의 관계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문화적, 인종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중앙집중화 경향에 반대하는 정치세력화의 이념으로서, 국가 전체와 국가 내 특정지역 간의 경쟁과 대립”으로 정의되고 있다(정병기, 1996:28). 최근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주의는 “국가공간의 범위를 초월하여 유럽화와 세계화와의 새로운 정치·사회적, 공간적 통합과정을 보완하는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안영진·박영한, 1998:61). 문학과 예술은 실존적 측면과 허구, 상상, 이상적 측면에서 사회를 공간과 연결시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며, 문학작품이 허구, 상상, 이상의 공간을 창조하는 적극적인 목적은 지역공간이 타 정치·사회 공간에 의해 억압 혹은 종속의 관계를 해방시켜 독립적인 혹은 이상적인 정치·사회 공간을 건설하기 위함이다. 까뮈 작품에 나타난 공간연구에 의하면, “상상 속에 그려있는 상징적이고 심리적 공간을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까뮈의 작품의 특징이다. 알제리는 실제로 지도상에 존재하는 나라이지만 이곳은 그리스 정신의 전통을 이어받아 인간을 자연 속으로 돌아가게 하는 신화의 공간이다”(이인숙, 1996:185). 지역의 전통, 문화, 자연 경관 등을 상품화시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자 노력하는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은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중화학공업중심의 대량생산체제 하에서 형성된 지역이 침체됨에 따라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외부에 홍보하여 자본, 기술, 기업을 유치하려는 전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 이러한 전략이 이용되고 있다(김숙진, 1999; 추명희, 1998; Watson, 1991).

상상, 허구, 이상, 가상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은 물리적 공간에 기초하여야

한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지리학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논리실증주의 지리학은 물리학, 기하학(수학), 논리학 등에서 발전된 공간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표의 다양한 자연, 사회 현상들의 인과관계나 공간법칙을 수립하려고 노력했다. 즉, 지리학은 기하학의 기본요소인 점, 선, 면의 개념에 기초하여 세계를 동질의 공간으로 가정한 뒤, 독자적인 공간 내재적 법칙을 수립하려고 노력하였다(Bunge, 1966).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은 자연과 인문, 사회현상을 구분 혹은 분류하는 수단이거나, 현상들이 구체화되는 무대 혹은 용기로 인식되었으며, 대표적인 예가 동질지역과 기능지역의 분류, 명명이다. 1970년대 이후 서구의 인문지리학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사회 이론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간과 사회를 상호 작용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수립함에 따라 물리적 공간의 내재적 법칙을 수립하려는 공간연구와 이와 관련된 지역연구는 더 이상 지리학의 중심에 위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지리학이 공간 내재적 법칙을 수립하려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 공간연구와 지역연구에 물리적 공간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리적 공간은 사회, 자연현상의 존재를 위한 절대적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공간을 경계짓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회적 관점에서 지역개념은 자연발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에 기초한 사회적 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며, 만들어진 지역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사적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근대 서구의 사회과학은 공간과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인식하거나 공간은 사회가 존재하기 위한 무대나 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지역은 상이한 사회(혹은 자연)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단위 혹은 이들 현상들이 구체화되는 무대로 인식하였지, 사회적 힘에 의해서 지역이 어떻게/왜 형성되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지역이 사회변화에 적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즉, 지역은 물리적 공간에 기반을 둔 사회적 인식과 실천에 의해서 형성, 지속, 변화되는 관점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3. 공간, 시간, 사회의 관계성에 의한 지역이해

근대과학은 공간과 시간을 물질 혹은 자연현상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공간과 시간은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체계는 사회과학에도 강한 영향을 미쳐 사회현상을 공간과 시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역사적 시간과 물리적 공간을 초월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회이론의 수립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근대과학과 이에 영향을 받은 사회과학은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 새로운 이론을 수립하게 되었다. 뉴턴의 물리학을 반박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과 시간인식은 물리적 실체 혹은 자연 현상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²⁾ 1970년대 이후 사회과학은 근대과학에 기초한 전통적 사회이론을 비판하면서 물리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 속에서 사회를 해석 혹은 설명하려는 새로운 이론(구조화이론, 후기근대화론, 여성주의, 탈식민지론)을 발전시켰다. 근대과학과 계몽주의 사상(일반성/추상성, 이성/합리성)에 기초한 공간, 시간, 사회에 대한 인식은 지역 이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지역사회, 문화, 일상적 경험들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Huber and Pedersen, 1997:579-580). Huber & Pedersen(1997)에 의하면, 전근대적 시간과 공간은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인식되었지만, 근대과학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추상화, 일반화시킴에 따라 지역이 아닌 전지구적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는 지식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전근대 시기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지역 사회에 종속되어 있었지만, 근대시기에서 지역사회는 전지구적 시간과 공간의 일반적 개념에 종속하게 되었다.

공간, 사회, 시간의 개념을 치밀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이론을 수립한 대표적인 학자는 Foucault(1980), Giddens(1984), Harvey(1996), Lefebvre(1991), Soja(1996)이다. Harvey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은 사회적인 힘에 의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형성과 변화의 구성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발달은 “시간에 의해 공간의

소멸”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Harvey, 1990:418). Harvey는 시간과 공간의 사회적 형성에 있어서 자본의 힘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후기구조주의, 여성주의, 탈식민지주의, 문화이론에 의하면 성(gender), 인종/민족, 정치적 힘, 종교 등의 비경제적 요인도 공간의 형성, 지속, 변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Bridge, 1997; Massey, 1992). Soja는 그의 저서 Thirdspace를 통해서 “공간성(Spatiality), 역사성(Historicity) 그리고 사회성(Sociality)의 상호작용은 존재론, 인식론, 이론형성, 경험적 분석 그리고 사회적 실천의 모든 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996:71). Soja에 의하면, 전통적 사회이론이 인간의 존재(행위)를 사회와 역사의 관계로만 이해한 결과, 공간은 개별적 혹은 집단적 인간행위가 실현되는 무대, 용기, 혹은 제한조건으로만 인식되었다. Lefebvre(1991)에 의해 개념화된 사회공간은 공간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사회공간 개념의 발전은 서구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공간과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거나, 사회의 형성·지속·변화를 추상적인 공간에서 이해하려는 이론과 방법론의 비판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적 공간은 개별적 혹은 집단적 인간의 상상력, 이념, 사회적 힘에 의해서 형성된 생산물이며, 개별사회는 상이한 사회적 공간을 형성시키고, 생성된 사회공간들은 경쟁 혹은 갈등의 관계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Lefebvre(1991)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공간의 변화는 사회공간에 내재된 두 가지 상반되는 힘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하에서 형성된 사회공간은 교환가치에 의한 상이한 사회공간이 동질화되려는 경향과 사용가치에 의한 사회공간의 차별화 경향이 갈등을 일으킴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공간은 지속적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다. 교환가치의 논리에 따르면, 자본은 보다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공간을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공간이 점진적으로 동질화된다는 것이고, 사용가치에 의하면 비경제적인 인식과 실천, 즉 언어, 종교, 가치, 관습, 이념 등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적 공간은 차별화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자본의 논리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세계화 진전과 종교문제, 민족/인종

문제, 환경문제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리라 예상하고 있는 21세기에도 사회공간은 지역사회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Giddens의 구조화이론(structuration theory)은 사회구조와 행위를 공간과 시간의 결합적 관점으로 설명을 시도하고 있으며, 신지역지리학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Giddens, 1984, 이희연·최재현, 1998). Giddens에 의하면, 사회구조와 행위는 결정론적 혹은 자율적 관점이 아닌 상호작용의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실천되고 있다. 사회구조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사회구조는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힘으로 작용하지만 고정된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된다(Giddens, 1984). 구조화이론에서 사회행위와 공간을 연결시키는 장치가 로칼레(locale)로, “사회적 행위가 구체화되는 경계되어진 물리적 지역을 의미하며, 지역경계는 사회적 행위가 집중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담당한다”(Giddens, 1984: 375). Giddens는 사회적 행위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조직화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지역화(regionalization)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간입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위와 관계된 시·공간의 구역화(zoning)”를 의미한다(Giddens, 1984:119). 대도시 지역에서 사회적 행위가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4가지 방식,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밤에 텅 빈 지역, 밤에 활동이 빈번해지는 지역, 낮과 밤의 활동이 바뀌는 지역”으로 조직화 될 수 있다(김미숙 외 6인, 1994:133). 이희연·최재현에 의하면, “지역연구에서 구조화이론의 도입은 상이한 시간적 관점과 공간적 규모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다(이희연·최재현, 1998:563).

역동적인 관점에서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Lefebvre의 공간과 사회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Harvey와 Soja는 공간과 시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지속시키고 있다. 공간에 대해 시간의 우위성 혹은 중요성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Foucault에 의하면, “공

간은 생명이 없으며, 고정되어 있고, 비변증법적이고 정적인 반면에 시간은 다양하며, 생산적이고, 생명력이 있으며 그리고 변증법적이다”(1980:70). 물리적 공간을 전제하지 않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역동적이고 변증법적인 것은 추상·논리적 시간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에 기반을 둔 사회공간이거나 혹은 사회공간의 역동성에 기반을 둔 시간이다. 인류 역사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발달해 왔지만 역사가들은 공간보다 시간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역사변화에 있어서 공간의 능동적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김경근, 1997). “역사학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게르만 세계, 스칸디나비아 반도, 네델란드, 스코틀랜드, 남부 프랑스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하기에 앞서 16세기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 종교사, 정치사, 사회사의 수많은 실례들은 일반 역사서술에서 공간에 대한 시간의 절대적 우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역사가들은 공간에 대한 무관심과 시간에 대한 선호는 아마 의식적, 방법론적 또는 이론적 선택에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 내가 보기에 공간은 그 인식과 표현이 본질상 시간의 그것들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망각되는 것이다”(김경근, 1997:19-20).

인류역사에서 획기적인 시간인식과 실천의 변화가 농업에 기반을 둔 농업사회에서 공업에 기반을 둔 도시사회로 전환되면서 발생하였다. 농업이 생산과 생활의 중심이 된 농업사회에서 시간의 인식과 실천은 지역사회와 자연적 시간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다. 농업사회에서 농사일과 관계된 계절별 시간이 가장 중요했으며, 매일 매일의 일상시간과 여가시간도 계절별 시간에 의해 크게 제약되었다. 즉, 농번기의 일상시간은 농한기의 일상시간과는 상이하며, 농한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시간개념이 수립되는데, 매일과 한 주일 시간이 중요하며, 이것은 기계화된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행위/조직과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조직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다. 공업사회에서 시간개념은 지역사회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이고 전지구적 규모에서 조직화되었지만, 세계경제 체제 내에서 지역의 사회, 경제구조에

따라 그리고 지역 내에서 계층, 성, 인종에 따라 시간의 인식과 실천은 상이할 것이다. 최근 자본의 세계화와 정보,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됨에 따라 대도시는 24시간 사회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낮과 밤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루 24시간이 대낮과도 같은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시간의 개념이 변화되는 것으로, 시간은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밤 시간을 이용하여 이윤 창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4. 지역 사회와 자연의 상호관계성

지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지역의 자연환경은 지역사회의 인식과 실천에 의해서 변화되며, 변화된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 환경문제는 지역사회의 갈등과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전제는 지역정치생태학(regional political ecology) 내용의 핵심부분이다(박규택, 1998). 1950년대 인류학에 의해서 발전된 문화 생태학(cultural ecology)과 1970년 이후 서구의 사회과학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정치 경제학(political economy)의 결합에 의해서 탄생한 정치 생태학은 지역적 규모에서 자연환경의 이용과 사회, 자연환경 이용과 관련된 지역 사회내 집단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의 자연환경과 국가와 세계의 정치, 경제적 힘과의 관계를 설명한다(Blaikie and Brookfield, 1985, 1987; Bell and Roberts, 1991; Black, 1990; Bassett, 1988; Grossman, 1993). 정치 생태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심 내용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이해, 공간 규모에 의한 자연과 사회의 이해, 그리고 자연 환경에 대한 지식 체계의 다양성과 갈등이다(박규택, 1998:64-71).

정치 생태학은 자연과 사회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자연과 사회를 이분법 혹은 환원적으로 이해하려는 전통적 (사회)과학의 비판에 근거하고 있다.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은 서구의 사회와 문화를 배경으로 발전한 사상과 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시간과 공간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자연과 사회와는 무관

하게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으며, 또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법칙의 수립을 가능케 했다. 서구 과학과 문화가 해외 무역과 식민지 지배 정책을 통해서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비서구 지역에서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된 자연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점진적으로 소멸하게 되었다. 자연과 사회의 환원성이란 자연의 법칙으로 사회를 설명하거나 역으로 사회적인 논리로 자연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정치 생태학은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면서, 자연과 사회는 분리, 독립된 두 영역이 아닌 서로 밀접하게 관계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인간은 생존과 물질적 부를 축적시키기 위해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자연환경을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로 발생한 환경의 파괴는 역으로 인간의 삶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역 자연과 사회의 관계는 역사적 시간의 관점에서 지역내, 외적인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후진국에 있어서 자연자원 이용과 지역사회의 변화는 국가의 정치,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 체제의 수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Blaikie and Brookfield, 1985, 1987; Bassett, 1988). 서구 식민지 정책과 자본주의 침투는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 문화에 기초한 자원이용 형태가 서구의 과학성, 합리성, 일반성에 기초한 자원관리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지역의 경제, 사회체제가 국가와 세계 경제 체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Sivaramakrishnan (1995)는 영국 식민지 체제하의 인도 국가가 수립한 산림정책이 식민지 이전 인도의 각 지역에서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전통적 자원 이용 형태와 큰 차이가 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민지 인도 국가의 산림정책은 과학성, 합리성, 상품성에 근거한 서구근대 과학과 자본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자원정책은 탈 식민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정치생태학은 지역적 규모에서 실천되고 있는 자원이용과 관련된 계급/계층, 성, 인종/민족간의 사회, 정치적 갈등을 이론적이고 경험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치 생태학은 역사적 시간을 통해 지역 사회가 수립한 자연과 자연자원의 이용에 대한 지식 또는

인식 체계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되고 변화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많이 진행시키지 않았다. 서구의 근대과학은 자연을 기계적이고 인간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이해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식 체계를 형성시켰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지식체계는 서구의 식민지주의와 자본주의 팽창에 의해 비서구 지역의 사회, 문화, 역사,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지식체계를 주변화 혹은 사장시킴과 동시에 자연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또한 서구의 과학성에 기초한 지식 체계가 비서구 지역의 사회, 문화, 역사에 기초한 지식체계보다 우월성이 강조되었다. Huber and Pedersen(1997)은 티베트인들의 사회와 문화에 기반을 두고 수립된 날씨에 관한 지식 체계와 서구의 현대 기상학이 수립한 티베트의 날씨에 관한 지식 체계를 비교 연구하였다. 티베트인들의 날씨에 관한 인식은 자신들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었으며, 날씨는 질적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특히 종교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다. 반면에 서구의 근대과학에 기초한 기상학에 의한 티베트의 날씨는 지구적 규모와 양적 측면으로 표현될 뿐 티베트의 사회, 문화, 종교적인 면과는 완전히 분리되었고,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객관화, 일반화, 수량화로 표현되어 있다. 정치 생태학은 성에 의한 자연 자원 이용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자연에 대한 인식의 성적 차별성은 남성과 여성의 본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자연자원의 이용과 인식에 있어서 성적인 차별성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이 아닌 특정 지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Moore, 1993). 1970년 이후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서구의 근대주의 사상과 과학이 수립한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객관성, 추상성/일반성, 세계성에 강한 회의와 비판을 제기하면서 다양한 인식과 지식체계를 탐색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인식) 체계는 시간, 공간, 사회를 초월한 추상적, 논리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회, 문화, 정치, 경제와 치밀하게 결부시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5. 상이한 공간규모와 시간 규모에 의한 지역 이해

공간, 시간,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연구를 보다 심층화시키기 위해 공간규모와 시간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은 사회적 힘에 의해 만들어진 상이한 공간규모와 시간규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외적인 공간규모에서 실행되는 사회적 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형성, 변화한다. 전통적으로 지역연구에서 공간규모와 시간규모는 사회현상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거나, 사회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단위, 배경으로 인식되었지, 공간규모와 시간규모가 사회적 힘에 의해서 형성, 변화되고 나아가 인위적으로 형성된 공간규모와 시간규모는 사회형성, 변화에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과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다.³⁾ 1970년대 이후 급변하는 사회,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공간규모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지구화와 지방화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다(Brenner, 1998; Jonas, 1994; Lipietz, 1993; McGuirk, 1997).

1970년대 이후 자본의 세계화와 정보, 통신의 급속한 발전은 과거의 사회적 힘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공간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여 변화된 환경에 적응 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란 단순히 지역간의 동질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구촌으로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지역간의 격차가 생성되고, 독특한 장소의 특성이 형성되는 것으로도 이해하여야 한다. 즉 세계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장소의 개념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동질성은 강화되고 있다”(이회연, 최재현, 1998:567-56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시대에 수립된 공업지역은 자본, 기술, 고급인력, 생산시설이 지역의부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실업자수의 증가, 지역재정 확보의 곤란, 도로, 교량, 항만, 공항 등의 하부시설의 노후화, 범죄수의 증가, 지역의부로 인구 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부와 기업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외부의 자본과 기

술 유치,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반시장주의적 사회제도의 개편, 첨단 기업과 연구소 유치, 기업·대학/연구소·정부의 협력체제 수립, 신노사문화의 형성 등을 통해, 보다 혁신·창조적이고 지속적인 부(이윤)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공간으로 재구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지역공간의 변화 혹은 새로운 지역공간의 형성은 상이한 공간규모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물리적 혹은 자연적 공간은 수없이 많은 규모로 분리시켜 개념화할 수 있지만, 역사, 사회적으로 형성된 대표적 공간규모는 가정, 도시/농촌, 국가, 대륙(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세계이며, 개별 공간규모의 특성과 작용은 역사적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역사, 사회적으로 형성된 지역공간규모를 어떻게/왜 설정할 것인가는 객관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다. 도시 혹은 농촌, 도시/농촌과 국가 중간에 위치한 공간규모, 혹은 대륙을 지역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한국의 대학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학(area studies)에서 지역 공간규모는 개별국가 혹은 대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이다(이상섭·권태환, 1998). 이회연·최재현의 연구에서도 지역공간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상이한 공간규모의 관계의 측면에서 “지역의 변화는 지역성의 변화를 의미하며, 크게 국지적(local) 변화, 국가적 변화, 세계적 변화의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된다.”고 서술하고 있다(1998:571). 더욱이 19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와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은 지역공간규모를 구체적으로 경계짓는 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리학에서 지역공간규모는 국가의 하위공간(도시/농촌과 국가의 사이에 위치한 공간규모) 혹은 국가공간의 범위를 초월한 대륙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지역은 국가의 하위공간규모를 의미한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혹은 정보화 시대에 지역규모를 대륙과 같은 광범위한 공간규모가 아닌 국가의 하위공간규모에 초점을 둔 이유는 세계화의 여러 현상들이 지역 혹은 지역하위 공간규모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이며, 또한 지역공간은 생산과 생활의 토대를 제공하고 일상의 경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공간규모의 경계와 성격은

역사, 사회적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공간의 형성과 변화는 1) 지역공간 내부에서, 2) 지역공간과 지역하위공간간의 관계에서, 3) 지역공간과 지역상위공간(국가, 대륙, 세계)간의 관계에서 인식되고 행해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힘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지역과 지역 하위공간(가정, 이웃)간의 관계에서 볼 때, 지역은 지역하위공간들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며, 지역민들은 지역 하위공간에서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역의 의미와 실천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역과 지역상위공간(국가, 대륙, 세계)간의 관계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상호작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 국가는 금융/재정정책, 국토계획, 산업정책, 토지정책, 등을 통해서 지역공간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한편 사회, 경제적으로 형성된 지역불균등성은 지역사회간에 갈등을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갈등은 국가의 성격과 정책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Trubowitz(1998)는 1890년대, 1930년대, 1980년대의 미국 대외정책을 비교한 결과, 국가의 하위규모인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제발전의 불균등성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수립, 실천에 있어 긴장과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1980년대 미국 대외정책에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입장은 지역사회, 경제에 기반한 두 개의 이익집단, 즉, 북동부지역의 침체경제(declining "rustbelt" economies)에 기반을 둔 이익집단과 남, 서부지역의 성장경제(growing "sunbelt" economies)에 기반을 둔 이익집단의 갈등적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Trubowitz, 1998:4-5). 후기근대화론 혹은 탈국가론에 의하면, 자본의 세계화와 통신·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지역공간의 형성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세계적 공간규모에서 작동하는 요인에 의해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21세기에는 세계적 규모에서 인식되고 실천되는 정치적 이념, 자본의 논리, 기술발전, 종교, 소비문화는 특정 지역공간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과 세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지역은 세계로부터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동성에 의해 세계의 성격과 내용을 변형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Criz, J.M. et al.(1999)의 지중해 지역 농업의 세계화에 대한 연구에서, 저자들은 경제의 세계화에 있어서 주변지역의 경제 변화가 세계경제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말까지 지중해지역의 농산물, 특히 과일은 유럽과 미국의 소비시장을 지배하면서 세계소비시장의 주도하였지만, 20세기 초반이후 캘리포니아 지역의 과수농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중해지역 과수농산물 중심의 세계시장구조가 미국 과수농업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현재는 북미와 유럽 선진국 농업의 자본과 기술을 이전받은 중, 남미 국가와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생산량을 증대시키면서 세계 과수생산과 소비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시간의 개념은 내적 법칙 혹은 자연적으로 주어 진 것이 아니라, 개별적 혹은 집단적 인간의 인식과 실천에 의해서 형성,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⁴⁾ 사회,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시간의 인식과 실천은 공간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상이한 시간규모로 이해되어야 한다. 시간규모(time scale)란 10분, 1시간, 100시간, 1일, 365일, 1년, 100년 등의 물리적 시간에 기초하여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식과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시간규모를 의미한다. 그리고 시간규모는 사회적 힘에 의해 형성될 뿐만 아니라, 형성된 시간규모는 사회의 작용과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상생활과 관계된 시간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행위(수면, 식사, 일, 휴식)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역, 계층, 성 등에 따라 차별성을 보인다. 단시간적이고 반복되는 일상생활 시간과는 대조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와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간은 문명, 종교, 경제/정치체제 등이 있다. 브로델은 장기지속의 시간규모 개념을 수립하여 수세기 동안 반복되는 사회, 경제, 공간 구조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장기지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간단히 말해서 지속되는 기간이 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수세기 동안 반복적으로 동일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최소한 수세기가 지나

야 그것은 변화를 맞이한다. 따라서 장기지속을 확 인하거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세기에 걸치는 시간 대를 관찰해야 한다”(김용중, 1996). 상이한 공간규모와 시간규모가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지역이 형성 되고 변화시킨다는 관점은 지역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 결론

전통적으로 지역연구는 지리학에서 중심적 위치 를 점유해 왔고 미래에도 중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세계화의 진전과 정보, 통신 기술 의 빠른 발전에 따르는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자연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실 천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 라서 지리학이 지역과 사회, 자연의 연구에 독자적 인 영역을 구축하고 나아가 타학문 분야에 적극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새로운 개념의 틀을 수립하 고 이에 기반을 둔 많은 경험적 연구물을 축적시켜 야 한다. 지역연구의 새로운 개념 틀은 공간, 시간, 그리고 사회·자연 현상을 상호 작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개념의 틀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다양한 사회·공간이론이 1970년대 이후 빠르게 발전되었다. 그러나 지역을 종합적이고 역 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상이한 사회·공간이론들 을 보다 치밀하게 결합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중심 개념이 공간, 시간, 사회/자연 이다.

지역연구의 새로운 개념 틀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 지역의 개념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역은 자연적으로 주어지거나 혹은 특정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는 성질이 아니라, 한정된 물리적 공간에 기 반을 둔 사회와 자연의 힘이 상호 작용하면서 만들 어진 것이며, 형성된 지역은 역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공간, 시간, 사회/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공간과 시간은 사회(혹은 자연) 현상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작동하며, 또한 사회적 으로 형성된 공간과 시간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

동력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공간/시간과 사회를 상호관계성 속에서 설명할 때 경제적 힘, 특히 자본의 논리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인종/민족, 성, 종교 등과 같은 비경제적 힘이 지역형성, 지속/갈등,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호 관계성 속에서 공간과 사회를 설명하 려는 사회이론들은 자연현상과 사회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이론들을 지역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지역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포함시 켜야 한다. 즉 지역의 자연환경은 지역사회의 인식 과 실천에 의해 형성, 변화되고 있으며, 변화된 자연환경에 의해 발생된 환경문제는 지역사회의 갈등 과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간, 시간, 사회/자연의 상호작용성은 지역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지역을 보 다 구체화하기 위해 공간·시간 규모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공간·시간의 규모도 사회, 자연의 힘 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 회적 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또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 시간의 규모도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지역형성에는 상이한 시간규모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의 활동과 관계된 단시간적 시간 층위, 문명, 경제/정치 체제, 언어관습 등과 같은 장 기 지속적인 시간층위 등 다양한 시간층위들이 동 시에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이한 공간규모와 시 간규모의 결합은 공간, 시간, 사회(자연)의 상호관 계 속에서 지역의 이해를 깊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제시한 공간, 시간, 사회(자연)의 상호 작용 속에서 지역을 이해하려는 관점은 보다 세련 될 필요가 있으며,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 화될 수 있다.

註

- 1) 특정기준에 의해서 동질성을 갖는 지역은 형식지역 혹은 동질지역으로, 기능의 통합성 혹은 상호의존성 에 의한 기능지역 혹은 결합지역으로 인문지리학은 단순하게 정의, 분류, 명명하고 있다. Blij and Muller (1994)에 의하면, 지역은 일정한 면적을 포함하고, 특 정기준에 의해서 경계되어지며, 특정공간에 위치된

공간, 시간, 사회/자연의 상호관계성에 의한 지역이해

것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 2) 현대물리학에 따르면, 물리적 실체는 4차원적 시·공간(time-space)의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인식주체는 인식대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Massey, 1992:76).
- 3) Wallerstein의 세계체계이론(world-systems theory)에 의하면,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세 개의 지역(중심, 반주변부, 주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 지역간의 관계는 자본과 기술이동, 무역, 계급갈등, 그리고 국가(혹은 국제)정치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다(Wallerstein, 1974, 1983, 1989).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생산의 사회적 관계(계급관계)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어 형성되었으며, 모든 사회와 정치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세계체제를 이루고 있다(Straussfogel, 1997:120-121). Wallerstein은 세계체계이론에서 지리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을 경제, 사회, 정치현상과 관계시키고 있지만, 상이한 공간규모와 시간규모의 사회적 형성, 작용, 변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세계체계론과 공간규모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Taylor에 의해서 진행되었다(Taylor, 1982, 1987, 1993). Taylor(1982)는 세계경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지구적 공간, 국민국가의 이념이 실현되는 국가 공간, 그리고 일상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도시 공간으로 구분하여 Wallerstein의 중심지역, 반주변지역, 그리고 주변지역의 분류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Taylor, 1982, 1993). 세계체계론적 기초한 Taylor의 상이한 공간규모의 구분은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실현되는 지구적 공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하위 공간(국가, 도시)은 지구적 공간에 종속 혹은 수동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이한 공간규모간에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작용의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둘째, Taylor의 세계공간의 구분은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세 가지 공간규모는 세계 경제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 혹은 세계 경제가 실현되는 무대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이한 공간규모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인위적으로 형성된 공간규모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속, 갈등, 변화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체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셋째, Taylor의 공간규모의 구분은 시간규모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인위적으로 형성, 지속, 변화되는 상이한 공간규모는 역사적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 4) 일반적으로 시간은 1) 자연 혹은 우주적 관점, 2) 개별 인간의 주관적 혹은 현상적 관점, 3) 역사, 사회적 관점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Osborne, 1994:4). 우주적 관점에서 시간은 자연 현상에 기초한 것으로 동일한

순간이 무한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개념화되어지며, Benjamin에 의해 텅빈 동질적 시간(empty homogeneous time)으로 그리고 Althusser에 의해 동질적 지속성(homogeneous continuum) 이념으로 기술되고 있다. 현상학적 시간은 인간의 의식이나 존재와 관계된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 속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시간은 분리, 독립되어 있지 않고, 현재와 관계되어 인식 혹은 실천되고 있다. 과거는 기억으로 현재화되고, 현재는 경험에 의해 현재화되고, 미래는 기대 혹은 불안을 통해서 현재화되고 있다(Osborne, 1994; Cederlund, 1997).

文獻

- 김미숙 외 6인(편역), 1994,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서울(Giddens, A., 1993, *Sociology, Polity Press*, London).
- 김숙진, 1999, 장소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4(2), 209-225.
- 김용중, 1996, **브로델의 지리적 역사: 장기지속과 변화**, 한국 서양사학회, 근대 세계체계론의 역사적 이해, 67-92.
- 박규택, 1998,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에 의한 자연 환경과 사회의 관계 이해, **지리학논구**, 경북대학교, 18, 60-75.
- 안영진·박영환, 1998, 서유럽의 지역주의론에 관한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33(1), 57-74.
- 김경근(옮김), 1997, **유럽의 발견: 인류학적 유럽사**, 까치, 서울(Todd, E., 1990, *L'Invention de l'Europe*, Editions du Seuil, Paris).
- 이상삼·권태환, 1998,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인숙, 1996, 까뮈 작품에 나타난 공간연구: 그리스, 빠리, 암스테르담, **프랑스문화읽기**, 창간호, 175-201.
- 이희연·최재현,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4), 557-574.
- 정병기, 1996, 독일 - 남·북부의 지역주의와 동·서독 갈등, **역사비평**, 34, 28-44.
- 추명희, 1998, 이벤트관광의 정착과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3(2), 339-351.

- Bassett, T.J., 1988, The political ecology of peasant-herder conflicts in the northern Ivory Coas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8(3), 453-472.
- Bell, M. and Roberts, N., 1991, The political ecology of Dambo soil and water resources in Zimbabw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6, 301-318.
- Black, R., 1990, Regional political ecology in theory and practice: a case study from northern Portugal,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5, 35-47.
- Blaikie, P., 1985, *The political economy of soil erosion*, Longman, London.
- Blaikie, P. and Brookfield, H., 1987, *Land degradation and society*, Methuen, London.
- Blij, H.J. and Muller, P.O., 1994, *Geography: Realms, Regions, and Concepts*, Seventh Edition, John Wiley & Sons, New York.
- Brenner, N., 1998, Between fixity and motion: accumulation, territorial organization and the historical geography of spatial scal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6, 459-481.
- Bridge, G., 1997, Mapping the terrain of time-space compression: power networks in everyday lif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5, 611-626.
- Bunge, W., 1966, *Theoretical geography*, Lund Studies in Geography, Series C, General and Mathematical Geography, No.1, C.W.K. Gleerup, Lund.
- Cederlund, C.O., 1997, On the spacing of time: on the tide of history, 1(1), *International Journal of Historical Archaeology*, 81-89.
- Chouinard, V., 1997, Structure and agency: contested concepts in human geography, *the Canadian Geographer*, 41(4), 363-377.
- Criz, J.M. et al., 1999, "Horn of Plenty": the globalization of mediterranean horticulture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ern Europe, 1880-1930,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9(2), 316-352.
- Fitzsimmons, M., 1989, The matter of nature, *Antipode*, 21(2), 106-120.
- Foucault, M., 1980, *Power/Knowledge*, New York: Pantheon Books.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Polity Press, Cambridge.
- Grossman, L., 1993, The political ecology of banana exports and local food production in St. Vincent, eastern Caribbea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3(2), 347-368.
- Harvey, H., 1990, Between space and time: reflections on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0(3), 418-434.
- Harvey, D.,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Cambridge and Oxford: Blackwell.
- Hubber, T. and Pedersen, P., 1997, Meteorological knowledge and environmental ideas in traditional and modern societies: the case of Tibet, *J. Roy. Anthropol. Inst.*, 3, 577-598.
- Jonas, A., 1988, A new regional geography of localities?, *Area*, 20, 101-110.
- Jonas, A., 1994, The scale politics of spatia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2, 257-264.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Cambridge, MA: Blackwell.
- Lipietz, A., 1993, The local and the global: regional individuality or interregionalism?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S18, 8-18.
- Massey, D., *Spatial Divisions of Labour*, Macmillan, London.
- Massey, D., 1992, Politics and space-time, *New Left Review*, 196, 65-84.
- McGuirk, P.M., 1997, Multiscaled interpretations

- of urban change: the federal, the state, and the local in the Western area strategy of Adelaid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5, 481-498.
- Moore, D.S., 1993, Contesting terrain in Zimbabwe's eastern highlands: political ecology, ethnography, and peasant resource struggles, *Economic Geography*, 69(4), 380-401.
- Osborne, P., 1994, The politics of time, *Radical Philosophy*, 68, 3-9.
- Pratt, A.C., 1995, Putting critical realism to work: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geographical research,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9(1), 61-74.
- Sayer, A., 1992, *Method in Social Science*, 2nd edition,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Sivaramakrishnan, K., 1995, Colonialism and forestry in India: imagining the past in present politic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7(1), 3-40.
- Soja, E.W., 1996, *Thirdspace*, Cambridge and Oxford: Blackwell.
- Straussfogel, D., 1997, A systems perspective on world-systems theory, *Journal of Geography*, 96(2), 119-126.
- Swyngedouw, E., 1996, The city as a hybrid: on nature, society and cyborg urbanization, *CNA (Capitalism, Nature, Socialism)*, 7(2), 65-80.
- Taylor, P.J., 1982, A materialist framework for political geography,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S7, 15-34.
- Taylor, P.J., 1987, The paradox of geographical scale in Marx's politics, *Antipode*, 19(3), 287-306.
- Taylor, P.J., 1993, *Political geography: world-economy, nation-state and locality*, Longman, London.
- Trubowitz, P., 1998, *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conflict and change in American foreign polic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Thrift, N.J., 1983, On the determination of social action in space and tim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 23-57.
- Watson, S., 1991, Gilding the smokestacks: the new symbolic representations of deindustrialised reg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9, 59-70.
- Wallerstein, I., 1974, *The modern world-system*, vol.1, Academic Press, New York.
- Wallerstein, I., 1983, *The modern world-system*, vol.2, Academic Press, New York.
- Wallerstein, I., 1989, *The modern world-system III: the second era of great expansion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 1730-1840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Yeung, W.C.H., 1997, Critical realism and realist research in human geography: a method or a philosophy in search of a metho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1(1), 51-74.

Understanding of Region As an Interaction among Space, Time, and Society

Park Kyu-Taeg* · Lee Sang Yool**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conceptual framework for comprehensively and dynamically understanding region which is based on an interaction among space, time, and society. Region is not naturally and objectively given, but socially constructed based on material space, and such a socially constructed region takes an active role for changing society because of the conflicts either within the region or among the regions.

Particularly the social theory which tries to establish the new perspectives to the interaction between space and society is not much concerned about the relations between space and time and also those between society and nature. The theory of space and time scale is needed to deeply understand space, time, and society/nature.

Key words : region, social theory, space, time, space and time scale

*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